

2 0 2 3 지 구 촌 교 회

#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  
Sharing Jesus!

**VOL.21**  
2023 11-12



# 신뢰하는 삶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복음성가

지 212장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15-26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 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 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온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해를 가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의 요셉의 나이는 56세쯤 되었고, 그는 54년 정도를 더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돌볼 것이니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요청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2023. 11 둘째 주

#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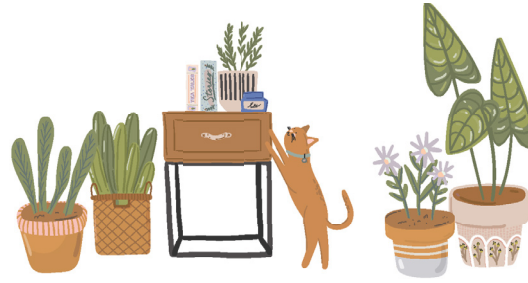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복음성가

지 206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14

- 01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 0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 0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 04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 05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 06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 07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 0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 09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 10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 1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 12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 13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 14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1.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때로 오랜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을 거쳐야 합니다. 애굽에 거주하게 된 야곱과 그 가족은 70명에 불과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2.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애굽의 새로운 왕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고, 혹독한 학대를 가하게 됩니다. 잡초를 밟을수록 죽지 않고, 더 자라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과한 착취와 억압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번성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럴수록 노예 해방에 대한 열망은 커져갈 것이고,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열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고통과 억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내 영혼이 더욱 깨어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복음서가

지 407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 15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 16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 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  
들을 살린지라
- 18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  
들을 살렸느냐
- 19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  
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 20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  
니라
- 21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 22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1.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의 학대에도 더욱 백성의 수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를 부릅니다. 산파는 그 당시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도움을 주면서 잘 관찰하여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를 바로 죽이는 것은 정말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도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렸고, 다시 두 산파를 부릅니다. 애굽 왕은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내아이를 살려주었냐?”라고 질문합니다. 아주 크게 화를 내며 산파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는 다르게 건강하고 힘이 세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요?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행동했던 일들을 가족들과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물에서 건져낸 아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성가

지 465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 0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 06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 07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 0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 0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 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 11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 12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 13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 14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 15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변성을 막으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레위 가족에게 주신 아들도 숨길 수 없을 만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 부모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버렸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그 상자 속 아기를 발견하였고 히브리인의 자녀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합법적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2.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23절) 히브리 민족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금세 온 애굽에 퍼지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모세였다면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최고의 삶



##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복음성가

지 40장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17-29

- 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 21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 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 23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 24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 25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 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 28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1.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최고 권력자인 헤롯의 불륜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판은 아내인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게 했고, 결국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동했고 삶으로 살았습니다. 요한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최고의 법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요구대로 요한의 사형을 헤롯에게 요청합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하지만 자기의 맹세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시선 때문에 사형을 허락합니다. 헤롯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에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헤롯은 재판하지 않고는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는 로마법과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약자를 짓밟으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한 삶, 이 삶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주변 우리의 이웃들도 살리는 삶임을 믿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ex 돈, 인맥, 사랑, 도덕 등)?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풍요의 주님, 능력의 주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복음성가

지 200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34-46

-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 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 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 42 다 배불리 먹고
-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1. 오병이어 사건 앞서 헤롯 왕의 호화로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왕의 산해진미와 흥겨운 춤이 있던 이 잔치에는 사람의 술수와 범죄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신 오병이어의 자리에는 비록 다양한 음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와 전능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던 많은 무리를 붙잡히 여기신 예수님께서서 기적을 베푸신 이 순간은 그 어떤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곤을 당신의 풍요로 채우시고, 우리의 한계를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리러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신 후, 나누시되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전달하십니다(41절). 제자는 주님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무리를 보고 붙잡히 여기는 시선과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풍성함과 같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 능력의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과 사랑의 수고를 함께 감당하는 제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한없는 풍성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풍성함이 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2023. 12 셋째 주

#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복음성가

지 412장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47-56

- 47 저물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1.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를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밤늦은 시간 제자들은 벳새다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큰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바람과 파도는 제자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방관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들의 힘든 상황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원래 목적지인 벳새다가 아닌 게네사렛으로 가게 하십니다.
  
2. 게네사렛에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지만, 계속되는 치유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도움을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봅시다.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복음성가

지 67장  
나의 슬픔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25-40

-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1.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적하며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왔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복음성가

지 94장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41-51

- 41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  
거려
- 42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  
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1.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예수님은 광야에서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죽은 떡이지만 예수님은 먹고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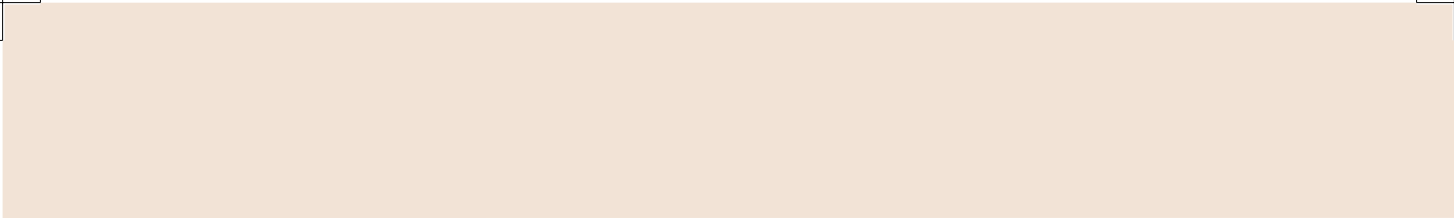


#### 하브루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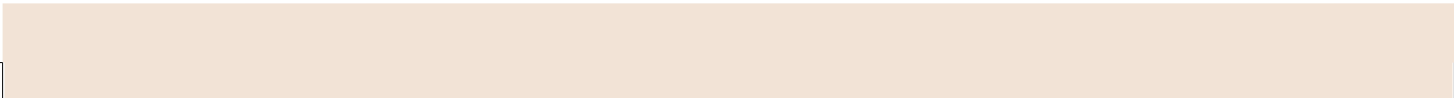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어보세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single column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존귀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짝지워주신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통해 우리 가정이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샘솟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순간순간 단비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  
셔서 아내의 삶에 강물과 같은 은혜가 머물게 하소서! 아내가 섬기고 연결된 모든 공  
동체에 복을 주셔서 어디에서나 사랑받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보물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피난처입니다.  
당신의 손이 닿는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자녀이름**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이름**가 신명기 28장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이름**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  
게 자라게 하시고 남에게 배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했던 예복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는 축복  
을 주소서! 부모님의 기도제목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무장시켜주소서!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  
고 나와 연결된 사람을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닛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